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⑰ 차를 우리기 전에 할 일 5

모든 것 내려놓는 마음으로 마무리

7. 분향(分享)

신수가 차인이 차와 교류를 하는 수행 단계라면 기초 차식의 제7식인 분향은 차를 우린 사람과 손님 사이의 교류를 의미한다. 분향은 진심을 담아 손님을 청해 잘 우려낸 향기로운 차를 손님과 함께 나누는 차식으로 찻자리에 함께한 손님들과 기초 차식이라는 다도의 수련과정을 통해 완성된 차를 함께 나눔을 한다. 다인(茶人)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나눌 줄 알아야한다.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오는 행동과 마음의 속 깊은 정을 전하는 행위는 분향을 통해 정과 나눔의 마음을 공유하고 배워야 하는 과정이다.

〈맹자〉 양혜왕 하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여쭈었다.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즐겁습니까?" 하니 왕이 답하길 "혼자 즐기는 것이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왕의 답을 통해 나눔의 정신이라는 도리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혼자서 음악을 듣는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음악을 듣는 아취를 따라 올 수 없음을 이야기 한다. 제왕의 대답은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즐거움은 함께할수록 더욱 커진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도리를 설명하고 있다. 나눔이라는 것은 인생의 일정한 경지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차의 큰 매력은 예와 덕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나누며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느끼고 더 나아가 차생활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차의 색향미를 나누고 차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차를 우리는 방법과 마시는 방법을 공유하고 다례와 다도를 통해 얻는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엔 반드시 스승이 하나 있다고 하셨다. 천하의 모든 차인은 나의 좋은 도반이며 덕 있는 스승이며 좋은 가족이다.

차는 혼자 마시면 신묘하고 둘이 마시면 아취가 있고, 여럿이 마시면 그곳엔 지혜가 있다고 하였다.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만 차의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며 더 많은 세대가 어울려 차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과 덕을 향유할 수 있다. 커피 등을 비롯한 현대의 많은 음료들에서는 찾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속에서 어떤 정신과 어떤 나눔을 과연 향유 할 수 있을까? 어린이부터 다도에 입문해서 가정에서 학교에 차문화가 전파 되어 차의 분향의 덕성이 퍼진다면 우리의 정신문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8. 방하(放下)

방하는 기초 차식의 마지막 단계이다. 방하란 차를 우리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사용한 다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찻자리의 정리이다. 흩어졌던 다구들을 정리하면서 찻자리 준비로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다. 방하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를 우리는 과정을 끝내고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이다. 찻자리의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다. 지나간 일은 과거로 되돌리고 허물은 묻고, 마음속에 번뇌는 내려놓는 수신의 과정이다.

둘째, 거둔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사용한 다도구를 거두어들여 완벽하게 제자리에 정리한다. 다도구를 거두어들일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여 차가 가지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다구들을 잘 정리하여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시작과 끝이 정돈된 아름다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옛 것을 정리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지워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습득할 수 있다. 찻잔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다도를 깨칠 수 있게 된다.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우리 몸 안에서 과하게 축적된 지방과 스트레스는 심장을 압박하고 머리를 무겁게 만든다.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영혼을 피로하게 만들고 지나친 욕망과 꿈은 삶 자체를 억누른다. 삶 속에 지나친 문제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다. 깨달음을 얻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이다.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게 되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방하' 란 바로 몸과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음을 의미한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하착(放下著, 내려놓음)과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아 두지 말라는 심무과(心無果)의 뜻이 다도의 마지막 단계 방하의 정신과 귀결된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유이며 해탈의 길이다. 우리는 얼마만큼 삶속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가? 기초 차식의 마지막인 '방하' 의 의미가 차의 참 맛이며 차도 수행의 가장 큰 핵심이다. 차의 맛이 깊고 향기가 아무리 그윽한들 내 마음의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갈 수 있겠는가? 지금 차 한 잔 마주하며 무상하게 피어오르는 찻잔의 숨결을 느껴보자.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⑰ 태풍과 미네랄 공급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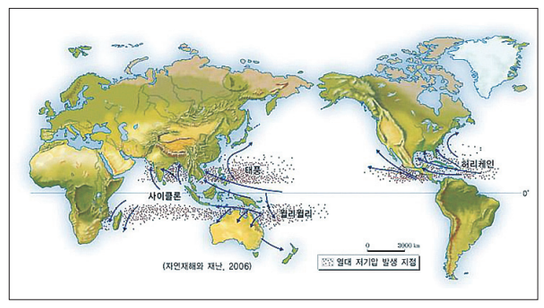
육지에 바다 미네랄 공급해 주는 '태풍'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 혹은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태풍이 불어온다. 몇 번 안 될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큰 피해를 주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큰 피해를 겪다보니 태풍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구상에는 대부분 지역에 태풍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아시아에서 위력을 떨치는 것을 태풍(Typhoon), 북미와 멕시코 서해안의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를 중심으로는 사이클론(Cyclone), 호주에서는 윌리윌리(WillyWilly), 필리핀에서는 바기오(Baguio), 멕시코 서해안에서는 코르도나자(Cordonaza)라고 부른다.

이들 태풍은 종종 세계적인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럼 태풍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태풍이 부는 지역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이 사람 살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게 자연재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 상식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야 맞지만, 그곳은 대부분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 그 피해 이상의 좋은 것을 주기 때문이다. 태풍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지의 흙을 바꾸어 준다. 홍수가 난 후 그 지역에는 예외 없이 풍년이 든다. 그것은 홍수로 인해 토양이 바뀌고 상류의 비옥한 흙과 미네랄이 불어난 물에 쓸려 내려와 하류의 농토를 뒤덮기 때문이다.



태풍발생지역

이처럼 태풍은 토양을 바꾸어 준다. 다시 말하면 오랜 농사로 인해 토양에서 사라진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짓는 토양의 미네랄은 계속해서 소모될 뿐 공급이 없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태풍은 그 부족한 미네랄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의 땅속 깊은 곳의 흙을 파헤쳐서 하류의 농토에 공급한다. 그렇게 공급된 토양은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하여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옛날 이집트에서는 홍수가 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였다. 지금 우리가 제발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미네랄이 공급되어 풍년이 들기 때문이었다. 홍수가 나서 상류의 미네랄이 풍부한 흙이 떠내려 와서 농토를 새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논에 객토라고 해서 모내기 전에 황토를 날라다 논에 뿌려주었던 것이 같은 이치이다.

둘째는 바닷물을 바꾸어 준다. 태풍은 바다 및 육지 온도를 조절해 주고 바닷물을 섞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바닷물은 다 같은 바닷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네랄이 많은 바닷물이 있고, 지역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도 있다. 또 적조로 인해 미네랄과 산소가 부족해 죽어가는 바다도 있다. 태풍은 이런 여러 종류의 바닷물을 엄청난 힘으로 섞어 준다. 그렇게 해서 바닷물은 새롭게 미네랄을 공급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나 건강한 바다가 되는 것이다.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나라 남해안의 적조 현상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진다.

셋째는 육지에 바다의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다. 태풍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다의 미네랄을 육지에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태풍의 위력은 엄청나다. 보통 풍속이 33m/s 이상인 것에 태풍이라는 이름을 사용되는데, 그 크기도 엄청나고 에너지도 엄청나서 원자폭탄의 수천, 수만 배에 해당된다. 이런 엄청난 힘으로 바닷물을 섞고 공기 중으로 퍼 올리고 그것을 육지에 쏟아 붓는 것이다. 그렇게 태풍과 함께 육지로 올라오는 바닷물 속에는 많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바닷물로 인해 육지에 미네랄이 공급된다. 중국에서 발원한 수천, 수만 톤의 황사 먼지가 태풍의 힘 없이도 수천 km를 날아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바다의 태풍이 바닷물을 퍼 올려 육지에 뿌리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육지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 그 결과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이 계속해서 씻겨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렇게 수천 수만 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사 및 과수 등을 통해 땅속의 미네랄은 식품에 포함되어 계속해서 소모된다. 그럴 경우 육지와 논과 밭에 미네랄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토양에 포함되어 있던 미네랄은 대부분 없어져야 정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식물에서 섭취하는 미네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라는 식물에 공급되는 미네랄의 공급처는 어디일까? 물론 비료와 거름을 주고 있지만, 그 양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는 공급원이 태풍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나무가 무성한 열대 우림지역의 토양이 비옥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태풍 없이 너무 잦은 비로 영양분이 씻겨 내려가서 표층의 토양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다. 겉보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땅일 뿐이다. 그래서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간다. 울창한 열대우림을 불태워 그 불탄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유기물과 미네랄로 농사를 짓고나 후 다른 곳에 불을 질러 농사짓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토양에 미네랄이 부족한 것이 그들이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화전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태풍 없이 비만 내리는 지역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태풍은 큰 피해도 주지만 육지에 바다의 미네랄을 공급해 주고 바다를 바꾸어 주는 고마운 현상이기도 하다. 바다의 미네랄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주)오씨아드 이사〉

일일시호일

뇌에서 7mm 종양…
제거했지만 두통·경련 시달려

2003년 한국 온 스리랑카 출신 사만씨…농장·축사·공장서 노동
계속된 통증에 진단 받아보니 뇌수막종…남은 병원비도 13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